

# SW·AI Challenge 남원서 개최

### 소프트웨어·인공지능 응용 및 창조적 산출물 구현 대결 유튜버 남도형 '꿈이 있다면 지금 도전하세요!' 강연 등

남원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 주최하고, 전북소프트웨어(SW)미래채움센터와 도 교육청이 공동 주관하는 '전북 소프트웨어(SW)미래채움 소프트웨어 인공지능 도전(SW·AI Challenge) 대회'가 오늘부터 12일까지 스위트호텔 남원에서 열린다고 밝혔다.

남원시장을 비롯한 주요 내빈과 대표 참가 학생들이 함께 개막 퍼포먼스를 진행, 기조 강연으로는 유튜버 남도형이 '꿈이 있다면 지금 도전하세요!' 라는 주제로 강연을 펼치며, 남원시 홍보대사인 김범준이 진행하는 학생들을 위한 레크리에이션 시간도 갖는다.

회는 '전북 소프트웨어(SW)미래채움' 사업의 일환에서 추진된 것으로, 도내 초·중·고등학생 150여 명이 참가해 소프트웨어(SW) 융합을 주제로 사회문제(고령화사회, 기후, 디지털 범죄 등) 해결을 위한 사전 소프트웨어·인공지능(SW·AI) 교육에서 배운 지식 응용 및 창조적인 산출물을 구현하는 대결을 펼친다.

이에 따라 학생들은 11일부터 12일까지 사전 소프트웨어·인공지능(SW·AI) 교육에서 배운 지식 응용, 소프트웨어(SW) 융합을 주제로 한정된 시간 내에 아이디어를 도출하고 코딩을 통해 프로그래밍의 결과물을 만들어낼 예정이다.

우수작은 △미래인재상(도지사상) △창의등뽕상(도교육감상) △재능가득상(남원시장상) △희망채움상(전북테크노파크위원장상) △꿈채움상(한국전자기술연구원장상) 등을 시상한다.

남원시 홍보전산과 양효상 과장은 "참가 학생들이 이 대회를 통해 인공지능 시대에 따른 컴퓨팅 사고력과 문제해결력을 갖춘 미래 사회 인재로 성장하고, 소통·공유·협업·도전적 문제 해결 경험을 통해 창의적이고 융합적인 사고력을 키우게 되어 다양한 분야에서 성공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전북 소프트웨어(SW)미래채움 소프트웨어 인공지능 도전(SW·AI Challenge) 대회'가 오늘까지 스위트호텔 남원에서 열린다.

# 임실군, 아름다운 산타축제 개최

### 임실치즈테마파크서 23~25일까지... 산타패레이드 대회 등 다채

임실군의 대표 겨울 축제인 2023 임실 산타축제가 오는 23일부터 25일까지 3일간 임실치즈테마파크에서 개최된다.

전라북도 대표관광지 육성사업 일환으로 추진되는 임실 산타축제는 2017년부터 매년 방문객들로부터 큰 호평을 받고 있다.

올해에도 다채로운 프로그램과 다양한 볼거리를 통해 아름다운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조성하고, 주제별 구역으로 나누어 다양한 체험프로그램과 선물 이벤트 행사 등을 통해 가족들과 연인들에게 많은 즐거움과 추억거리를 선사할 예정이다.

특히, 다양한 공연이 펼쳐지는 메인 특설무대를 비롯하여, 화려한 크리스마스 트리에 아름다운 사진을 남길 수 있는 포토존, 각종 체험부스에서 즐길 수 있는 체험존, 놀거리가 풍부한 놀이존, 맛있는 먹거리를 즐길 수 있는 먹거리존 등 구역별 특색있는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산타축제 대표 프로그램인 산타패레이드 경연대회는 참가단체를 대상으로 특색있는 산타 복장 및 겨울 분위기를 연출하여 테마파크 전역을 행진

하는 패레이드 프로그램으로, 참가 신청은 8인 이상으로 참가비 50만원이 지급된다.

또한, 임실 산타축제에서는 겨울을 대표하는 썰매놀이를 재현하고자 치즈클링킹 및 산타썰매장을 조성하여 운영할 예정이다.

가족트리 만들기, 과자집 만들기 등은 가족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만들기 체험 또한 즐길 수 있다.

신 민 군수는 "임실치즈테마파크를 언제나 볼거리 가득한 사계절 축제의 장으로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준비하고 있다"며 "이번 겨울에도 임실치즈테마파크에 오셔서 아름답고 특별한 추억 쌓으시며 임실 산타축제를 즐기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임실 산타축제 방문객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전주-임실 간 셔틀버스를 운영할 예정이다.

전주 종합경기장-한옥마을(라한호텔)-임실치즈테마파크(축제장)를 순회하는 노선이며, 1시간 간격으로 운행할 예정이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임실치즈테마파크 홈페이지(<http://www.chesspark.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임실=진홍영 기자

## 지역 소식통

### 임실군, 방동 꽃다울 문화다락 개관식 개최

임실군이 관내 방수리 747번지 일원 방동 꽃다울 문화다락 신축공사 현장에서 마을 및 지역주민과 초청 인사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관식을 개최했다. '꽃다울 문화다락'은 지난 2019년 농림부 농촌다움 복원사업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후 지방 이양되어 임실군에서 2020년부터 2023년까지 4년간 20여명의 예산이 투입되어 신축됐다. 건축 규모는 전체면적 214.78㎡로 주민회의 등을 위한 다목적실과 함께 세미나실, 공유주방 등의 공간으로 구성됐다. /임실=진홍영 기자

### 남원여성새일센터

#### 여성 일자리 '최우선'

남원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여성가족부와 고용노동부가 전국 130개 센터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3년도 전국 새일센터 평가 결과 최고등급인 A등급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2009년 7월 문을 연 남원새일센터는 지난 14년간 남원을 비롯한 주변 지역 취업을 희망하는 경력 단절 여성에게 새로운 일을 통해 삶의 활력을 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번 평가는 지난해 사업 실적에 토대로 취업성과, 직업교육훈련 및 인턴십, 사후관리, 고객 만족도 분야로 나눠 진행됐었다. /남원=김기두 기자

### 남원소방, 축사시설 안전 당부

남원소방서서장 소재실)가 관내 축사시설을 대상으로 겨울철 화재 안전관리 강화를 당부했다. 전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8년~2022년) 전북에서 발생한 축사 화재 269건 중 42%(115건)이 11월부터 2월 사이 겨울철에 발생했는데 축사의 경우 불에 타기 쉬운 보온재를 사용하고 전기 시설이 낡은 경우가 많아 겨울철 화재 위험성이 높기 때문이다. 축사시설 화재예방 주의사항은 △전기 관련 시설의 전문업체 점검 △규격과 용량이 맞는 전열기구 사용 △분리배선 배선 사용 금지 등이다. /남원=김기두 기자

# 순창군, '의료급여사업 우수기관 지자체' 표창 수상

### 보건복지부 의료급여사업 평가서 의료급여 의료재정 절감 등 노력

순창군이 보건복지부 주관 전국 시·군·구 지자체 의료급여사업 운영 기관평가에서 '2023년 보건복지부 의료급여사업 우수기관' 지자체로 선정됐다.

'의료급여사업 우수기관 평가'는 매년 의료급여 업무 담당자의 사기진작과 의료급여사업 운영 내실화를 목적으로 의료급여사업에 기여한 우수기관과 유공자를 포상하고 있다.

특히, 군은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하는 의료급여사업인 의료급여 과다이용자 및 요양병원 장기입원자를 대상으로 개인별 맞춤형 집중 사례관리를 실시하여 퇴원 후 가사간병 및 시립소연계 등 복지 효용을 높이는 등 내실 있고 체계적으로 의료급여사업을 운영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그뿐만 아니라, 전체의료급여수급자



순창군이 보건복지부 주관 전국 시·군·구 지자체 의료급여사업 운영 기관평가에서 2023년 보건복지부 의료급여사업 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 (사진=순창군청 제공)

의 의료급여 이용 및 사례관리 대상 진료비 감소 실적관리, 의료급여사업 역량강화 교육, 지역사회 연계 협력구축, 의료급여 사업 홍보, 의료급여 특화 사업 등을 통해 의료비 예산절감 효과를 거뒀다. 최영일 순창군수는 "의료급여 의료재정 절감 등의 노력이 평가되어 우수기관의 영예를 안는 좋은 결과를 얻어 매우 기쁘다"며 "앞으로도 의료급여 사업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저소득 사회계층 의료급여사업의 기반을 체계적으로 마련하여 약물 오남용 방지 및 사회적 입원 등으로 인한 의료급여 재정 안정화 기여에 최선을 다하여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은 결과를 얻어 매우 기쁘다"며 "앞으로도 의료급여 사업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저소득 사회계층 의료급여사업의 기반을 체계적으로 마련하여 약물 오남용 방지 및 사회적 입원 등으로 인한 의료급여 재정 안정화 기여에 최선을 다하여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순창=이영원 기자

# 남원시, 항공산업 세부실행계획 용역 착수 보고회

남원시는 지난 8일 최경식 남원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항공산업 산·학·연 관계자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미래 신성장 산업인 드론, 미래항공모빌리티(AAM) 등 「남원형 항공산업 세부 실행계획 수립 용역」 착수 보고회를 가졌다고 11일 밝혔다.

보고회는 용역을 맡은 안보경영연구원 측의 과업 계획에 대한 보고와 질의응답, 전문가 자문 등으로 이어졌으며, 이번 연구용역은 고부가가치의 미래 신성장산업인 항공산업(드론, 미래항공모빌리티(AAM), 경량 항공기 등)을 육성하고자 기본계획과 연계한 세부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특히 '남원만이 할 수 있는', '남원이 경쟁 우위에 있을 수 있는 모델'을 발굴하여 집중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용역에서는 △관광, 레저스포츠 분야와 연계한 드론 특화산업 발전 방안을 활용한 항공 레저 활성화 방안 제시 △미래항공모빌리티(AAM) 지역 특화 산업 서비스 모델 발굴 △항공산업 전문인력 양성, 기업 유치 등 산업 생태계 조성 방안 도출 등으로 내년 9월까지 수행할 예정이다.

남원시는 미래 신성장산업 드론·항공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민선 8기 역

점시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2023년 드론 실증도시 구축사업 선정, 드론 특별자유화구역 지정 등 드론 산업 기반을 구축하였다.

또한 국제항공연맹(FAD) 남원 월드드론레이싱 챔피언십, 글로벌 드론산업 박람회 등을 포함한 2023 남원 세계드론대전 개최를 통한 드론 레저스포츠 메카로 발돋움하고 있다. 드론 특화 분야 전문인력 양성 및 취·창업 지원, 유소년 드론 스포츠 장비 지원, 항공 직업 체험 프로그램 등을 새롭게 추진하여 시민들이 체험할 수 있도록 저변 확대에도 힘을 쏟고 있다.

특히 지리산, 섬진강 등 아름다운 경관을 하늘에서 볼 수 있는 경량 항공기 체험 프로그램을 전북에서 유일하게 보유하고 있어, 새로운 관광수요를 늘려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와 연계하여, 미래 항공산업에 대해 관광형, 공공형 등 남원형 서비스 모델을 발굴하고, 실제 운영할 노선까지 심도 있게 분석할 예정이다.

최경식 남원시장은 "이번 용역을 통해, 항공산업의 다양한 분야 중에 남원만이 할 수 있는 모델을 발굴하여, 새로운 남원시 항공산업의 미래 청사진을 그려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대한민국 치즈의 수도**  
**임실 치즈**

벨기에 출신 지명된 신부(Didier l'Serstevens)가 국내 최초로 개발 보급한 한국 치즈산업의 원조 임실치즈. 신선한 원유와 40년 이상의 가공기술력으로 만든 임실치즈는 맛이 고소하고 담백하여 어린이, 노약자의 영양간식으로 매우 좋습니다.